

# 2023 한국체육대학교, 본예산\*으로 미리보기

\*본예산: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된 연간 예산, 당초 예산

1년에 우리 대학에 필요한 돈은 얼마일까? 2023 회계연도 대학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하, ‘2023 예산서’)을 훑어보던 중 학교 교육 여건 개선 항목에서 243.6% 증가했다는 지표가 눈에 들어왔다. “어떤 예산이 243.6%나 증가했다는 걸까? 이 예산은 어디에 쓰일까?” 이런 궁금증에서 2023 예산서를 살펴보았다. 수많은 숫자와 알 수 없는 회계 용어 속에서 학보사가 한국체육대학교의 2023학년도 계획을 물었다.

2023 예산서를 통해 올해 한국체육대학교의 큰 그림을 살펴보자. 박서진 수습기자 psj3158gh@naver.com

## 243.6%의 정체, ‘건설비’에서 찾다

243.6% 지표는 국가지원금으로 들어온 사무국의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예산에서 나타났다. 국가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약 9억 5천만 원이 늘어 13억의 예산이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의 예산은 어디에 사용될까?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정책사업은 크게 시설 확충비와 실험실 및 강의실 여건 개선 단위 사업으로 나뉜다. 시설 확충비 단위 사업으로 13억 예산의 대부분인 12억이 편성되었다. 그중에도 시설 확충비의 세부 사업인 건설비로 11억이 사용될 예정이다. 골프연습장 개축(학생회관 철거)과 시설 설비보수, 노후 냉난방기 및 승강기 교체 등을 위한 금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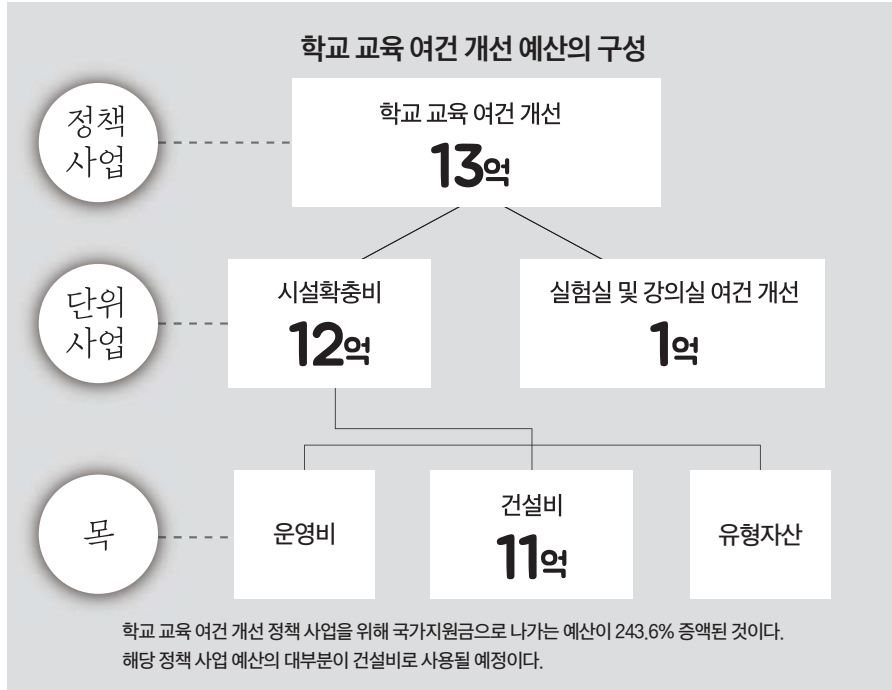
건설비로 사용될 12억이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 건축팀의 이인재 주무관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주무관은 “골프연습장 개축공사는 2024년 3월 착공해서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골프연습장 개

축은 “기존 학생회관 건물 철거 후 다목적 체육관과 함께 지을 예정”이라며 공사 일정을 전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존 학생회관 건물의 철거가 진행된다. 철거가 끝난 내년 3월부터 다목적 체육관과 골프연습장이 착공해 ‘25년 9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건설비에 포함되는 노후 냉난방기 및 승강기 교체 공사 예산으로 약 1억 6천만 원이 편성됐다. 이 주무관은 “빙상장, 양궁장, 필승관, 과학관, 오륜관, 승리관, 본관 및 연구동의 노후 냉난방기와 승강기를 교체하는 작업”이라 전했다. 이어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5월에 공사 발주해서 대략 6월~12월, 총 6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사계획을 밝혔다.

지난 해 사무국 예산액은 약 23억 7천만 원이었다. 올해 사무국 예산액은 약 34억 원이 편성되었다. 243.6% 증액의 정체는 학교 전체 건물 공사비와 개축공사를 위한 예산이었다.



## 장애학생을 위한 예산, 769.2% 증가

우리 대학엔 총 32명의 장애 대학(원)생이 있다. 장애 대학(원)생이 원활하게 우리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 △학내 이동지원 및 편의시설 개선, △학내 구성원의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769.2%라는 큰 숫자가 장애학생지원센터 예산에 적혀있다. 해당 지표는 교육복지 지원 예산에서 나타났다. 전년 대비 5,600만 원 늘어 약 6,300만 원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지 인터뷰를 진행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한소영 조교는 “학기마다 하던 장애학생지원센터 OT와 간담회를 비롯해 장애 학생 학습 및 이동 보조기기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학내 시설 점검(강의실 및 편의 시설, 경사로 등)을 진행하여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학생지원센터 홍보 등의 사업이 예정되어 있음을 전했다.

한편, 사무국 예산으로 승리관 및 오륜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위한 9억 원이 편성된 상태다. 작년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위한 예산이 이월되면서 올해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재정위원회에서 총학생회장이 하고픈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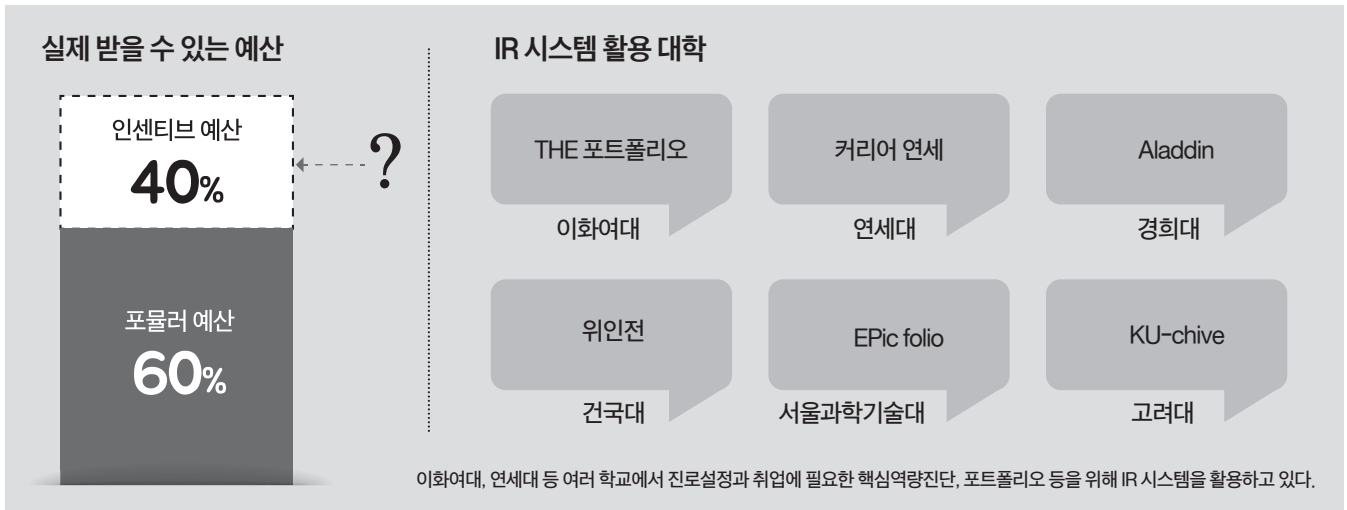
2022학년도 제2회 한국체육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가 2023년 2월 10일에 1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임기성 총학생회장(사회체육 19)이 재학생 신분으로 당일 회의에 참석했다.

임 회장에게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에 관해 물었다. 그는 “학우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메타버스 도서관이 개관하면서 학우들의 복지 공간이 증대되었지만, 여전히 학우들의 아쉬움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또한, 전마 생활

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기본적인 생활 여건 보장에 힘써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정위원회는 4월 이내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다음 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임 회장은 “학우들의 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당연히 요구하겠다.”라며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임 회장은 “총학생회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학우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며 총학생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했다.

## 한국체대 학생이라면 주목해야 할 기획처 예산



기획처는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대학 혁신 사업 등을 진행하는 부서로 해당 부서의 예산 증액은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이 공적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교육부에서 총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에 진행한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레저스포츠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멘토링’ 등이 있다. 대학 혁신 사업은 미래를 대비하여 대학이 스스로 혁신하도록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작년에 대학 혁신사업 예산을 통해 학생들이 불편을 느꼈던 일체형 의자가 교체되었다.

올해 기획처가 진행하는 사업 계획이 전면 바뀌었다. 교육부의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학별로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포물러 예산이 60%, 성과평가 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40%로 새로이 구성되었다. 작년의 경우 포물러 예산이 85%, 인센티브 예산이 15%였다. 따라서 성과평가가 낮게 나올 경우, 인센티브 비율이 40%인 만큼 타격이 커져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작년 사업평가에서 C 등급을 받았던 전례가 있다. 이러한 방침에 기획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

기획처의 예산은 약 35억 원이 편성되었다. 기획처에 해당 예산 사용 계획에 관해 물었다. 올해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대학 혁신 사업의 계획에 관한 질문에, 기획처(기획평가총괄팀) 행정사무관 김소영 팀장은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경우 올해 전면 개편되어 새로운 프로그램이 편성될 예정이다.”라며 전체적으로 바뀔 것임을 설명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5개년 사업이었으며 작년이 1주기 국립대학 육성사업(18~22)의 5차 연도였다.

김 팀장은 “대학 혁신사업의 경우 3개년 사업으로 올해가 2년 차”라고 말했다. 따라서 “작년 사업에 이어서 성과가 있던 사업 위주로 진행할 것”이라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방안으로 예산의 집중투자 계획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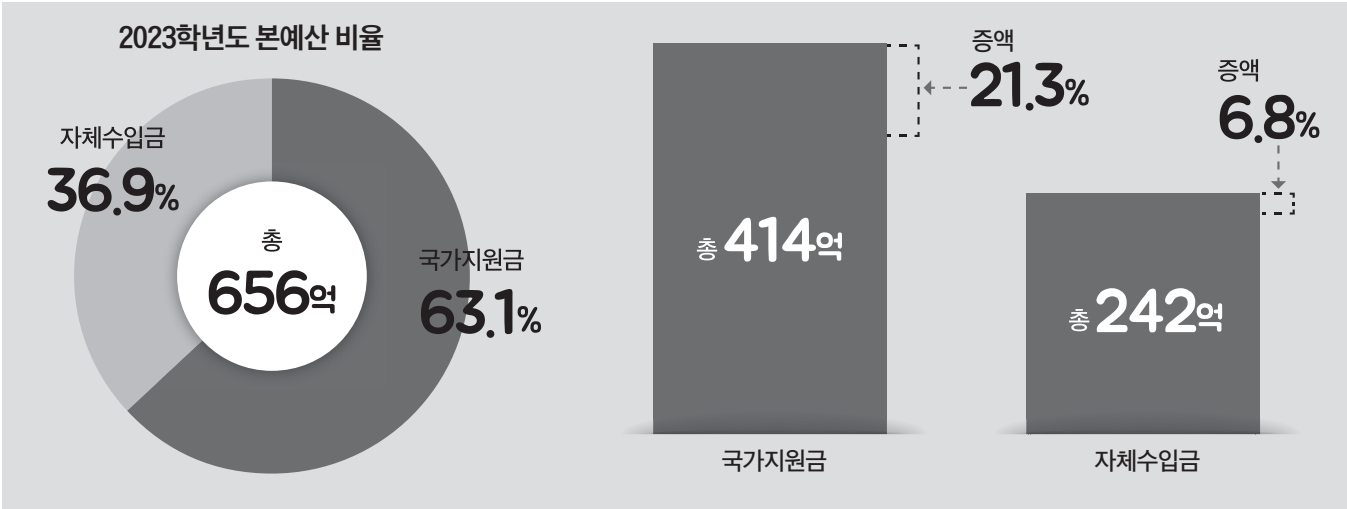
김 팀장은 “기획처는 현재 IR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의 핵심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했다. IR(Institutional Research) 시스템은 데이터 기반 분석 체계 시스템이다.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의 학습관리, 역량관리, 포트폴리오 등을 위해 IR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준비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단 김은희 연구원은 “IR 시스템(가제)은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다.”라며 IR 시스템을 설명했다.

이어서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IR 시스템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다.”라며 우리 대학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3월 29일(수)부터 4월 4일(화)까지 IR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인식 및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정확한 계획과 IR 시스템 구축의 과정은 4월부터 점차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학생들의 참여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해당 사업들의 예산 편성과 사용에 많은 학생의 관심이 필요하다.

## 흔들리는 재정 여건 속에서



2023년도 본예산은 총 656억 원이다. 국가지원금으로 들어온 414억 원과 자체수입금으로 들어온 242억 원으로 구성되었다. 예산이 전년도 대비 88억 원이 늘어나 15.5%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2023년도 예산 회의 안건 속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우리 학교의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고 있었다.

자체수입금은 교육 활동 수입, 사용료, 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242억 원 중 108억을 차지하는 전체 교육 활동 수입은 전년 대비 4,700만 원 늘었다. 이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들어오는 지원금의 증가를 통한 상쇄이다.

실상은 학부생 정영 감축과 중도 탈락률\*이 증가하면서 교육 활동 수입의 세부 항목인 학부생 수업료는 8,700만 원이 줄었다. 추가로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 등 불가 인상으로 기본 지출이 증가했다. 고정적인 수입

은 줄고 지출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세입에 비해 세출이 많아 공무원 인건비 분담금에 사용될 10억은 아직 예비비 편성도 되지 않았다.

해당 내용은 재정팀 박경환 행정주사와 만나 2023학년도 전체 예산에 관한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재정 상태에 대해 팩트를 알려주고 싶었다.”라며 전체적인 재정 상태를 전했다. 이러한 학교의 재정 상태에 관해 작년부터 재정위원회는 재정 건정성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안했다.

한국체육대학교가 유일한 체육 특수 목적 대학인 점과 학생들의 실적을 부각해 국가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또, 국가지원금 이외에 외부 지원금(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원금 등)의 확대를 통한 수입 증대 방안을 내렸다. 추가로 △일반수용비(일회

성 경비; 홍보·기념품비) △업무추진비(간담회 진행비) △재산 취득비 부문에서 세출을 줄이는 방안을 세웠다.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고 있다.

심지어 대학에 급하게 필요한 돈을 사용할 때 필요한 일명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 저축금인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감소 액수가 점차 늘어난다는 것이다. ‘19년 대비 ’20년은 17억원 감소했으며, ‘21년은 전년 대비 19억원 감소하여 ’22년에 순세계잉여금이 45억 원만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2023학년도 한국체육대학교의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도 탈락률: 편입이나 자퇴 등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탈락 발생 비율